

구우와 김시습의 창작심리 비교*

- 《전등신화》와 《금오신화》의 여귀형상을 중심으로 -

全 順 南**

<目 次>

I. 서론	1. 人·鬼 연애와 여성형상
II. 《전등신화》의 여귀형상	2. 여귀형상과 창작심리
1. 人·鬼 연애와 여성형상	IV. 구우와 김시습의 여귀형상을 2. 여귀형상과 창작심리
III. 《금오신화》의 여귀형상	V. 결론

I. 서론

먼저 《剪燈新話》와 《金鰲新話》의 여귀형상을 논의하기에 앞서 두 작품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보겠다. 《전등신화》는 명나라 太祖 洪武 11년(1378년)에 瞿佑가 창작한 것으로 추정된다.¹⁾ 《전등신화》는 전 4권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B5A07111373).

** 龜眉大學校 강사

1) 《전등신화》의 정확한 창작연대는 현재에도 고증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전등신화》 서문에 나타나는 구우 자신의 서술에 의하면, “내가 이미 고금의 괴이한 일들을 모아 《전등록》을 만들었는데, 대개 40권이다.(余既編輯古今怪奇之事, 以爲《剪燈錄》, 凡四十卷矣.)”라고 말하고 있다. 이 문장의 서명이 홍무 11년으로 되어 있으므로, 32세 무렵에는 《전등신화》의 구상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존본 《전등신화》는 4권 20편, 부록 1편까지 합쳐서 21편에 불과하므로, 서문에서 언급한 《전등록》과 현존본 《전등신화》

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권에 5편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으며, 말미에 또 부록 1편(〈秋香亭記〉)이 첨부되어 있어 총 21편으로 이루어진 문언소설집이다.²⁾ 이 중 여성이 주요인물로 등장하는 작품은 권1의 〈金鳳釵記〉·〈聯芳樓記〉, 권2의 〈滕穆醉遊聚景園記〉·〈牡丹燈記〉·〈渭塘奇遇記〉, 권3의 〈愛卿傳〉·〈翠翠傳〉, 권4의 〈鑑湖夜泛記〉·〈綠衣人傳〉과 부록인 〈추향정기〉 등으로, 21편 중 10편의 작품에 여성인물이 등장하고 있다.³⁾

《금오신화》는 世祖 말에서 成宗 초, 즉 1470년 전후시기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 작가 金時習의 나이는 30대 전반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원래는 현존본보다 더 많은 작품이 수록되었겠지만, 갑권에 수록된 작품은 총 5편이다. 이 중 여성이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작품은 〈萬福寺禱

가 동일한 작품인지 여부는 알 수가 없다. 현존본을 근거로 추정한다면, 《전등록》은 40권이라 하므로 원래는 200편의 작품이 존재했다는 계산이 나오지만, 《전등록》이 과연 현존본 《전등신화》의 20편과 동일한 작품이었던지의 여부는 현재의 자료로는 고증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전등록》과 연관된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기 이전에는 어떤 것도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2) 전순남, 《〈剪燈新話〉중의 애정전기소설》, 《동아인문학회》 30집, 2015, 1 쪽. 구우의 생애에 관한 가장 믿을만한 자료는 《剪燈新話》 간행본에 실린 작자 자신의 序文과 知友들의 跋文 등 9편이 대표적인 것인데, 이 자료들은 조선간본 《剪燈新話句解》에만 수록되어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재 일본의 내각문고에 보존되어 있는 《剪燈新話句解》本은 1602년 조선에서 간행된 尹春年 註解本이다. 《剪燈新話句解》, 《고본소설중간본》 33집 제4권, 중화서국, 1990 참조.
- 3) 《전등신화》와 《금오신화》의 여성형상연구는 비교연구의 차원에서 연구가 많이 되고 있다. 기존의 논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정유진, 〈한국·중국·베트남 전기소설의 여성형상 비교연구〉, 인하대학교 석사논문, 2002.
신해진, 〈조선전기 고소설에 나타난 여성형상의 특징과 그 의미〉, 《우리어문연구》, 2004.
박애화, 〈동아시아에 있어서 《전등신화》의 수용양상·애정류 작품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2009.
전순남, 《〈전등신화〉중의 애정전기소설》, 《동아인문학회》 30집, 2015.
윤정안, 《고전소설 속 여성원귀》, 푸른사상, 2017.
박일용, 《〈전등신화〉 소재 명혼소설과 〈만복사저포기〉의 귀녀형상과 그 상징적 의미》, 《문학치료연구》, 2019.

蒲記)·〈李生窺牆傳〉·〈醉遊浮碧亭記〉 등의 3편이다.⁴⁾ 그러나 본 고에서 관심을 가지는 여성형상은 주로 여귀형상이기 때문에, 《금오신화》 중 인·귀 연애를 소재로 하고 있는 〈만목사저포기〉와 〈이생규장전〉에 등장하는 女鬼의 형상에 대해 주로 논의할 것이다.

《전등신화》와 《금오신화》의 여귀형상연구는 어떠한 이유에서 중요한 것일까? 두 작품은 중국과 한국의 문언소설, 즉 한문소설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문학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등신화》는 당대 이후 거의 명맥이 사라져가던 전기소설의 서술 전통 중국소설사에서 부흥시킨 작품이다. 《금오신화》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전기소설의 장르관습을 만들어낸 작품이므로 조선소설사에서 매우 중요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소설 발전의 역사에서 문언소설은 지괴소설에서 전기소설로 발전해 왔으며, 인·귀 연애가 주요 애정소설의 장르로 발전한 것은 《전등신화》에 이르러 비로소 가능하였다. 즉 중국의 경우 남북조시대에 이미 지괴소설에서 인·귀 연애의 줄거리가 나타났고, 당대전기를 거쳐 명대의 《전등신화》에 이르러 하나의 장르 관습으로 굳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지괴소설이나 전기소설의 중간과정을 거치지 않고, 조선시대 초에 이르러 갑자기 《금오신화》가 출현하면서 시작되었다. 물론 《삼국유사》나 《수이전》 등에도 지괴소설이라 볼 만한 작품이 없지는 않으나 이런 작품들이 바로 《금오신화》와 연결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 결과 《금오신화》를 《전등신화》의 모방작으로 보는 연구가 줄을 잇게 되었다. 그러나 설령 《전등신화》의 모방이라 하더라도 우리 고소설에서 《금오신화》가 차지하는 문학적 가치는 가볍지 않다고 생각한다. 구우는 14세기에서 15세기에 생존하였으며, 김시습은 15세기에 생존하였으니 반세기 넘는 시간적 격차가 있기는 하지만, 두 작가의 문제의식과 창작심리에는 비슷한 측면이 적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⁵⁾ 《전등신화》

4) 심경호 역, 《매월당 김시습 금오신화》, 홍익출판사, 2000, 35쪽.

5) 예를 들자면, 구우는 원대 말엽 촉망받던 청년시인이었으나 원 왕조의 몰락과 더불어 명 왕조에서는 겨우 하급 교육관리의 삶을 이어 나가야 했고, 이렇게

와 《금오신화》의 여귀들은 비극적 운명을 가진 여성형상이 여귀형상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운명의 장난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슬픈 운명을 가진 여성인물과 그에 공감하는 남성인물의 엇갈린 애정이야기가 스토리의 주요 부분을 이루고 있다. 구우와 김시습은 왜 이렇게 비극적인 여성인물을(실은 女鬼형상이다.) 창조하게 되었을까? 물론 구우의 소설을 놓고 보면, 작품 중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애정고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두 작가는 아무래도 비극적 애정고사와 비극적 여귀형상의 창조에 매우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구우와 김시습은 女鬼와 살아 있는 남자의 애정전기형식을 통해 시대와 사회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다소 굴절되게 표현하였다. 그러므로 두 작가에게는 여귀형상이 단순한 여성형상 이상의 의미를 지닌 것이라고 하겠다.

II. 《전등신화》의 여귀형상

1. 人·鬼 연애와 여성형상

중국고소설에서 女鬼는 妖婦 곧 팜프파탈의 여성형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淑女 곧 순수를 상징하는 소녀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여귀가 비록 陰界, 곧 저승에 살고 있는 존재이지만 그 속성에 있어서는 살아 있는 여성의 특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다. 중국 고소설에서 여귀가 살아 있는 남자와 연애도 하고 사랑도 나누다

근근이 이어가는 삶속에서 다시 필화사건에 연루되어 보안으로 유배를 가는 등, 재능은 있으나 세상에 쓰임이 되지 못하는 울분의 세월을 살아야 했다. 김시습 역시 유년기에 이미 세종대왕의 격찬을 받는 등, 시인으로서의 자질을 보였으나 세조의 찬탈사건이후에 세상을 떠나 방랑하며 울분의 세월을 보내는 등, 두 작가의 창작심리는 유사한 면이 적지 않다.

는 소개, 즉 인·귀 연애를 모티브로 하는 작품은 이미 東晉 干寶의 《搜神記》에서 찾아볼 수 있다. 〈紫玉韓重〉·〈駙馬都尉〉·〈談生妻鬼〉·〈盧充瓊魂〉 등의 여러 편은 인·귀 연애의 모티브를 취하고 있는 작품들이다.⁶⁾

이 몇 편의 인·귀 연애고사는 후세의 소설에 대한 영향이 매우 크지만 그 중에서 〈자옥한중〉의 사례를 통해 인·귀 고사의 원형을 살펴보기로 하자.

紫玉은 춘추시대 말 吳王 夫差의 딸로 소개되고 있다. 韓重은 道術을 좋아했던 소년이었는데, 자옥과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 나중에 한중이 齊魯지방에 도술을 배우러가면서 자신의 부모에게 자옥과 서로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오왕에게 청혼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3년 뒤 한중이 도술공부를 마치고 돌아와 부모에게 청혼한 일에 대해 물어 보았다. 이에 부모는 오왕이 크게 노하여 허락하지 않았으며, 이 일에 상심한 자옥이 화병으로 죽게 되자 그녀를 도성밖에 장례 지냈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한중이 슬퍼하면서 자옥의 무덤에서 제사를 지냈더니, 자옥의 영혼이 나타나 서로 삼일동안 부부의 즐거움을 다하고 헤어졌다. 그리고 한중은 자옥으로부터 이별의 정표로 明珠를 받았다. 나중에 이를 알게 된 오왕이 자옥의 무덤에서 한중이 명주를 훔친 것으로 여겨 그를 벌주고자 했다. 이에 한중이 자옥의 무덤으로 달아났더니, 자옥의 혼령이 나타나 해명해 주었으므로 한중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전형적인 인·귀 연애에 해당되는 고사라고 할 수 있다.

귀신을 소재로 하는 지괴소설은 東晉이래의 南北朝 志怪小說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는 장르적 관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귀신 그 자체를 기록하고 있거나 귀신의 奇異한 모습·괴이한 靈力 등을 다루고 있는 작품은 매우 많으나 인·귀의 애정을 다루고 있는 작품은 의외로 그 숫자가 많지 않다. 《수신기》만 해도 근 500편 가까운 작품들 중, 인·귀의 애정을 소재로 하는 작품은 10편도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紫玉韓重〉에 등장하는 여귀 자옥, 〈駙馬都尉〉에 등장하는 여귀 秦女(즉 秦閔王의 公主),

6) 黃濂明 譯註, 《搜神記全譯》, 貴州人民出版社, 1994, 449-462쪽.

〈談生妻鬼〉에 등장하는 여귀 睢陽王의 공주, 또 〈盧充幽魂〉에 등장하는 여귀 崔少府의 딸 등은 매우 흥미로운 여귀형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여귀는 빼어난 미모에 공주 아니면 귀족의 딸로 그 신분이 설정되어 있어, 남북조시대 문인들의 심리를 엿볼 수 있다. 관리의 일원으로 지배계층의 하부구조를 이루는 봉건문인들에게도 최상위 계층이라 할 수 있는 王家의 一族, 貴族의 一族 등은 선망과 호기심의 대상이었다. 남북조시대는 귀족 문화가 모든 것을 지배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귀족계급과 평민이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자옥한중〉에서 일개 도사의 신분인 한중이 오왕에게 청혼한 사실이 오왕의 분노를 유발하여 결국 청혼이 실패하게 되었고, 이에 좌절한 자옥이 病死하였다는 줄거리는 이러한 역사 사실의 실재여부와 별개로 봉건시대 귀족사회의 실상을 어느 정도 반영해 주는 스토리라고 하겠다.

그런데 인·귀 연애의 관습을 하나의 장르로 굳힌 《전등신화》의 경우를 살펴보면, 인·귀 연애를 소재로 하고 있는 작품은 〈금봉채기〉·〈등목취유취경원기〉·〈애경전〉·〈취취전〉·〈녹의인전〉 등이 있다. 여기서는 인·귀 연애중 여성형상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등목취유취경원기〉의 사례를 먼저 소개해 보기로 한다.

元나라 仁宗 연간 永嘉縣에 살던 滕生이라는 수재가 臨安(지금의 杭州)에서 과거시험을 치른다는 말을 듣고 임안으로 여행 간다. 그는 임안의 숙소에 여장을 풀어놓고, 임안 일대의 명승지를 구경한다. 7월 보름날, 스산하고 쓸쓸한 聚景園을 구경하던 등생(즉 滕穆)은 前代의 공녀였던 여귀 衛芳華를 우연히 만나게 된다.

등생은 난간 아래에 이르러, 난간에 의지하여 잠시 쉬고 있었다. 갑자기 한 미녀가 먼저 취경원에 들어오고, 한 시녀가 뒤따라왔는데, 취경원 밖에서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바람 같은 머리 모양에 안개 같은 귀밑머리를 하고, 아리따운 자태를 하고 있었는데, 바라보니 마치 선녀 같았다. 등생은 난간 아래에서 숨도 쉬지 못하면서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있었다. 미인

이 말했다. “호수와 산은 예나 같고, 경치도 다르지 않다. 다만 시대가 달라지면서 세상이 바뀌었으니 사람으로 하여금 기장으로 가득한 궁궐의 슬픔을 느끼게 하네.” 미인은 취경원 북쪽에 있는 太湖의 바윗가로 걸어가더니, 드디어 시를 읊었다. “호수가 취경원의 정자는 훌륭한데, 거둬 와서 예전 노닐던 곳 추억하네. 그윽하게 玉樹曲을 부르고, 梁州曲에 맞추어 춤추었지. 길은 좁은데 꽃들이 수레 맞이하고, 연못은 깊은데 버드나무 가지 배를 스쳤지. 옛날 친구들은 모두 이미 죽었으니, 누구와 더불어 풍류를 말할까!” 등생은 방탕한 사람이었으므로, 처음 그 미모를 보았을 때부터 이미 진정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시구를 듣게 되자 숨씨를 발휘하고 싶은 생각을 금할 수 없었다. 그는 곧바로 난간 아래에서 시를 이어서 읊었다. “호수가 취경원의 정자는 훌륭한데, 절세미녀를 만났구나. 姮娥도 월궁에서 미모를 사양하고, 직녀도 하늘나루에서 내려와야 하겠구나. 미인의 마음속을 알 수 없으니, 온통 꿈속에 몸이 있는 듯하네. 바라건대 추연이 피리를 불어서 그윽한 골짜기에 봄이 오는 것처럼 되기를.”⁷⁾

앞에서 나왔던 지괴소설 〈자옥한중〉을 보면, 자옥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자옥한중〉에서 자옥의 형상묘사는 거의 없다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이다. 그러나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등목취우취경원기〉를 보면, 위방화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에서부터 여귀 위방화의 형상이 매우 생동감 있게 묘사되어 있다.

등목이 위방화와 시녀의 모습을 먼저 발견하고, 이어서 위방화가 시를 읊는 것을 등목이 듣는 장면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등목의 신분이 과거 수험생 곧 秀才이기 때문에 그가 미인이 읊는 시를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하여 연모의 감정을 품는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스토리 설정이다. 위방화

7) 《剪燈新話句解》·《古本小說叢刊本》 33輯, 中華書局, 1990, 1802-1804쪽. 生至軒下, 凭欄少憩. 俄見一美人先行, 一侍女隨之, 自外而入. 風鬢霧鬢, 綽約多姿. 望之殆若神仙. 生於軒下屏息以觀其所爲. 美人言曰: “湖山如故, 風景不殊. 但時移世換, 令人有黍離之悲爾! 行至園北, 太湖石畔, 遂詠詩曰: 湖上園亭好, 重來憶舊遊. 微歌調玉樹, 閱舞按梁州. 徑狹花迎輦, 池深柳拂舟. 昔人皆已歿. 誰與話風流. 生, 放逸者. 初見其貌, 已不能定情. 及聞此作, 技癢不可復禁. 卽於軒下續吟曰: 湖上園亭好, 相逢絕代人. 嫦娥辭月殿, 織女下天津. 未領心中意, 渾疑夢裏身. 願吹鄒子律, 幽谷發陽春.

의 시와 등목의 시는 그리 수준이 높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시가 연애를 위한 주요 서술수단이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서술수법은 구우 자신이 문인이었기 때문에 시를 남녀의 애정교류의 수단으로 여긴 것이다.

그런데 구우의 서술에서 남자주인공인 등목에 대해, 그가 詩才를 가지고 있었다는 특징 이외에는 별다른 특징적인 묘사가 없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반면 여귀 위방화의 형상은 대단히 세밀하게 서술되어 있다. 이는 분명 구우의 창작심리와 연관이 있는 것 같다. 구우는 위방화라는 여귀, 아니 여성형상을 통해 송나라의 몰락이라는 역사적 비극을 드러내려고 한 것 같다. 한편으로 젊은 나이에 남성과 접촉도 할 수 없는 궁녀의 신분으로 죽은 위방화의 형상을 통해 이 시대 여성들의 비극을 집중조명하고 있다. 작품에서 위방화가 지은 시는 모두 과거의 역사를 회고하는 것으로 작가 구우의 역사의식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木蘭花慢〉이라는 詞 2수의 원문을 소개해 본다.

記前朝舊事，曾此地會神仙。向月地雲階，重携翠袖，來拾花鈿。
繁華總隨流水，嘆一場春夢杳難圓。廢港芙蓉滴露，斷隄楊柳搖煙。(其一)
兩峯南北只依然，輦路草芊芊。恨別館離宮，煙銷鳳蓋，波沒龍船。
平生銀屏金屋，對漆燈無燭夜如年。落日牛羊隴上，西風燕雀林邊。(其二)

위 〈목란화만〉의 내용으로 보면, 궁녀였던 위방화의 입을 통하여, 화려했던 송나라 궁중의 생활과 폐허가 된 취경원 터를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구우의 역사의식을 엿볼 수 있는 詩詞라 하겠다.

원래 귀신은 사람과 잘 접촉이 되지 않는 편이다. 대개는 살아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죽음의 억울함을 호소할 경우에 사람에게 나타난다. 여귀 위방화는 무슨 억울한 사연이 있었기에 가난한 수재에 불과한 등목에게 나타났던 것일까? 위방화의 속마음은 주홍을 돋우기 위해 〈木蘭花慢〉을 부르고 난 뒤 등목과 나눈 대화에서 어느 정도 드러난다.

노래를 끝나치고 미인은 눈물을 줄줄 흘렸다. 등생은 좋은 말로 [그녀를] 위로하고, 은근한 말로 그녀의 마음을 흔들어 그녀의 마음을 살펴보고 했다. 미인은 일어나서 감사의 말을 하였다. “ [저는] 이미 죽은 몸으로 오랫동안 진토가 되었습니다. 만약 [공의] 건줄을 모시게 된다면 비록 죽었다 해도 썩지 않을 것입니다. 또 낭군께서 때마침 이 시구를 들었으니 진실로 이미 허락한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추연의 음률을 붙여 그윽한 골짜기에 한 번 봄이 활짝 피듯이 해 주십시오.” 등생이 말했다. “지난 번 읊은 시는 입에서 나온 대로 말한 것으로 실은 별 뜻 없이 말한 것인데 말하자 말자 이루어질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⁸⁾

여기 위방화는 생전에 궁중에서 공녀의 신분으로 화려하게 살았다. 공녀는 비록 궁중의 일원으로 화려한 생활을 누리긴 하지만 황제 한 사람의 승은을 기대하며 평생을 궁중에 갇혀 지내는 죄수 아닌 죄수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20대 초반의 나이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위방화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죽음이 매우 억울했을 것이다. 위의 인용문에는 남녀 주인공의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공녀로 계속 살았다고 해도 남자와 접촉할 수 없는 불행한 운명을 가졌던 위방화는 보통의 남자와 가정을 이루어 함께 살고자 하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을 것이다. 이 때문에 등생의 유혹에도 크게 화내지 않고, ‘[공의] 건줄을⁹⁾ 모시게 된다면 비록 죽었다 해도 썩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던 것이다. 또 등생의 승낙을 기정사실화하여 ‘이 시구를 들었으니 진실로 이미 허락한 것입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던 것이다. 여귀가 산 사람에게 나타나는 경우, 억울함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지만 처녀의 몸으로 죽는 경우 위방화처럼 살아

8) 《전등신화구해》, 앞의 책, 1808쪽.

歌竟美人潸然垂淚，生以言慰解，仍微詞挑之，以觀其意，卽起謝曰： 殂謝之人，久爲塵土。若得奉事巾櫛，雖死不朽，且郎君，適聞詩句，固已許之矣。願吹鄒子之律，而一發幽谷之春也。生曰： 向者之詩，率口而出，實本無意，豈料便成語識。

9) 건줄(巾櫛) : 고대에는 남자가 일상생활을 할 때 외출하게 되면 늘 수건과 빗을 가지고 다녔다고 한다. 따라서 건줄이란 남자가 지니고 다니는 일상용품의 총칭이라 할 수 있다.

있는 총각과 夫婦之緣을 맺지 못한 것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¹⁰⁾ <녹의인전>에서 趙源과 부부의 인연을 맺었던 綠衣人의 경우나 <금봉채기>에서 崔興哥와 결연을 했던 吳興娘의 경우도 그러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앞의 인용문을 살펴보면 등생은 매우 경박한 인물임이 드러난다. 그는 미인을 보자마자 春情이 발동하여 위방화가 太湖에서 시를 읊자 바로 답시를 읊어 그녀의 마음을 떠 보기도 하고,¹¹⁾ 위방화가 酒席을 마련하자 함께 마시고 즐기는가 하면 심지어 그날 밤에 동침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등생의 행동거지는 유생의 그것으로 보기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또 등생은 위방화가 귀신임을 알면서도 고향 永嘉로 데려가 3년 동안 부부로 살기도 한다.¹²⁾ 이는 <녹의인전>에서 조원과 녹의녀가 3년을 함께 살았다는 내용과 비슷하다. 이러한 인·귀의 인연을 구우는 宿緣, 곧 前生에서부터의 인연으로 설명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를 정면으로 드러내지는 못하고 어물어물하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실은 인·귀연애의 가장 합리적 설명은 인과응보, 前生과 後生으로 이어지는 宿

10) 조재현, <한글박물관 소장 <교만홍전>연구 - 《전등신화》 수록 작품 <모란 등기>와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50, 2020, 23쪽. 귀신은 존재인적으로 산 사람과 다른 세계에 속하기에 사랑을 지속하기 매우 어렵다. 따라서 사람과 귀신이 사랑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재생이나 부활과 같은 문학적 방식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그것 또한 사회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현실 이데올로기에 부합할 만한 인물만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런데 《전등신화》의 여귀들은 대개 산사람인 남성의 존재를 통해 자신의 억울한 죽음을 보상받고자 하는 억눌린 환상지체로 나타나고 있다.

11) 등목은 위방화의 중얼거림과 시를 듣고 그녀가 귀녀라는 사실을 짐작하면서도 ‘그녀를 보고 풍정을 억누르지 못하여(初見其貌, 已不能定情), 운하에서 내려온 직녀(織女下天津)’ 등으로 칭하면서, ‘추연의 노래를 불러 깊은 골짜기에 따뜻한 봄을 불어오고 싶네(願吹鄒子律, 幽谷發陽春)’라고 노래하여 그녀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한다.

12) 이석래, <<금오신화>는 <<전등신화>의 모방인가>, 《한국문학사의 쟁점》, 집문당, 1986, 335쪽. 이석래에 의하면 “여주인공 위방화가 귀신인 줄 알고 그의 허신을 용납하고 삼년간의 행복한 부부생활 끝에 숙연을 다하지만, <만복사저포기>에서는 양생이 만복사의 판방과 개녕동 소옥에서 교환 끝에 받은 은원을 증거로 임별에 비로소 귀신인 것을 안다”고 <만복사저포기>와 <등목취유취경원기>의 차이를 지적한 바 있다.

緣으로 설명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유생의 신분이었던 구우로서는 이를 정면으로 다루는 것이 매우 불편했는데, 명대 초기의 역사적 현실 앞에서는 더욱 그러했다. 明太祖는 몽고왕조 元을 북방으로 쫓아내고, 중원지역을 회복한 뒤 漢族문화의 회복을 선언하는 한편, 독재정치와 공포정치를 통해 관료사회를 뒤 흔들었던 것이다.¹³⁾ 사실 몽고족의 문화적 관습이 이미 백년 가까이 한족을 지배했기 때문에 단기간에 한족의 문화를 부흥시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明太祖가 독재에 가까운 전제적 지배정책을 실행한 것이 아무 이유 없는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오랑캐 몽고족의 압제정책에 오랫동안 신음했던 지식인들의 입장에서는 한족의 왕조가 부활되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인가 기대하다가 몽고족의 그것에 결코 뒤지지 않는 전제와 압제를 맞보게 되자 이제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당연히 이러한 명초의 정치 사회적 환경은 구우가 애정전기소설을 집필함에 크나큰 장애가 되었고, 여귀형상의 창조에도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자세하게 논의해 보기로 한다.

2. 여귀형상과 창작심리

元末明初는 動亂의 시대였다. 元의 順帝는 매우 오랜 기간 집권하였지만 방탕 무능하여 홍수와 기근 등의 계속되는 재난을 수습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수많은 流民들에 대한 구제책도 제대로 펴지 못하는 바람에 결

13) 華強·張國浩 지음, 구성희·추교순 등 옮김, 《아주 특별한 중국사이야기》, 신서원, 2008, 378-380쪽. 明太祖는 한족문화의 회복을 선언하는 한편, 황제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胡惟庸의 역모사건과 藍玉의 역모사건을 조작하여 많은 사람을 숙청하고 죽였는데, 이에 연루된 사망자는 근 3만 명을 넘는다고 한다. 이러한 明初의 공포정치는 엘리트 관료사회를 로봇으로 만들었으며, 관리들은 황제가 내리는 어떤 결정에도 감히 반대하지 못하는 공포분위기를 경험하게 되었다. 구우의 소설 창작은 문인의 일상생활에 기반을 둔 일종의 취미생활에 불과했지만 교육을 맡은 하급관리가 불교의 학설을 말하거나 남녀의 연애를 소재로 글을 짓는 일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었다.

국 일찍이 보지 못했던 대규모의 동란이 일어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순제는 정치적 갈등으로 말미암아 승상이었던 脫脫을 해임하였지만 紅巾賊의 세력이 기세를 올리고 大都마저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되자 다시 한 번 흥건적 진압의 총사령관에 脫脫을 임명한다. 脫脫은 온갖 노력을 기울여 장사성의 군대를 포위하는 백만 대군을 조직하는데 성공한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적 시기에 순제가 다시 脫脫을 해임하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했고, 결국 元朝는 回生の 기회를 놓치고 만다.¹⁴⁾

이러한 권력의 공백기를 틈타 강남지방을 근거로 삼은 朱元璋이 크게 두각을 나타내며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마침내 강남지방을 통일하게 된다.(1367년) 주원장은 계속하여 徐達과 常遇春 등의 장군을 大都로 진격시켜 원의 군대를 사막지대로 쫓아내고 명 왕조를 건립하였다. 구우는 원 至正 7년(1347년)에 태어났다. 구우가 서당에서 교육을 받던 10대의 시기에는 흥건적의 반란이 강남지방을 휩쓸어 구우의 집안 역시 피난을 가야 했고, 이어 과거에 합격하고 하급관리 역할을 했던 20대의 시기 역시 명 왕조 내부의 숙청과 정치 갈등으로 인해 조마조마하기 짝이 없는 시절을 보내야만 했다. 10대의 소년시기에 전란을 경험했던¹⁵⁾ 구우는 四明山과 姑蘇 일대를 전전하며 피난생활을 했는데, 아마 이 시기에는 무수히 많은 죽음들을 목격했을 것¹⁶⁾으로 추측된다.

14) 剪伯贊 主編, 《中國史綱要》, 人民出版社, 154-157/196쪽.

15) 박애화, 〈한·일·베트남에서 《전등신화》의 전파와 수용〉, 《일본연구》 17, 2012, 183쪽. 구우는 길고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바뀌는 정권교체와 원말명초의 대 동란을 겪은 사람이다. 그는 전란이 백성들에게 가져다주는 피해와 고통, 그리고 조정 관리의 암흑상을 그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한 사람이다.

16) 고소설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 적지 않은 연구자들이 〈秋香亭記〉의 남자주인공 商生을 瞿佑의 化身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다. 〈추향정기〉에 의하면, 상생은 오나라 원년(1364년)에 주원장이 오나라를 세워 강남지방을 안정시킬 때까지 약 10년 정도를 피난생활을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기간은 대체로 구우가 피난했다고 하는 시기와 일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란의 시대에 구우가 생존하였을 뿐 아니라, 명 왕조 건국 후에도 하급관리로 생활할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행운이었다고 생각된다. 피난을 10년이나 하면서

원과 명의 교체과정에서 일어난 대 동란이 구우의 내면심리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우선 구우는 전쟁과 같은 거대한 사회적 격변 앞에서 개인의 힘과 노력이 얼마나 보잘 것 없는가를 느꼈을 것이다. 이러한 개인의 무기력은 구우에게 일종의 숙명적 세계관을 형성시켰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등신화》의 곳곳에 보이는 인과응보식 구성과 숙명적 운명을 가진 인물의 이야기는 사실 구우의 깊은 인생체험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숙명적 세계관의 형성은 자연 구우가 가졌던 세계관의 갈등을 초래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명대의 체제하에서 교육관리를 지냈던 구우는 유생들에게 주자학적 세계관과 충효윤리 등을 반복적으로 강의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명 태조의 건국과정에서 나타난 약육강식의 논리와 권력을 장악한 무장들이 문인들을 푸대접하고 핍박하는 현실은 구우에게 많은 심리적 갈등을 유발했을 것으로 보인다. 즉 명 왕조의 건국과정은 주자학적 세계관과 충효윤리도덕의 관점과 잘 들어맞지 않는 공식이었다. 그러므로 구우가 숙명론적 세계관과 불교적 세계관에 기울게 된 것은 일종의 역설적 필연이었다.(구우가 불교적 세계관에 기울어졌다는 것이 그가 유교적 세계관을 거부하거나 포기했다는 의미는 물론 아니다.)

다음으로 명 왕조 초기의 지나친 독재정치와 관료에 대한 감시체제는 구우의 창작심리에 있어 지대한 공포심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추정된다. 구우는 작품 속에서 명나라의 정치나 체제에 대해 아무 언급을 할 수가 없었고, 이 때문에 그의 소설은 현 시대가 아닌 과거의 시대배경과 개인과 개인의 관계로 이야기가 국한되는 일종의 한계를 노출하게 되었다.¹⁷⁾ 작

구우는 전란의 참상을 생생하게 목격했을 것이다. 구우가 숙명론적 세계관을 가지게 된 것은 이러한 전쟁체험에서 오는 것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 17) 《전등신화》에 실린 작품들을 살펴보면 구우가 명 왕조의 시스템에 얼마나 불만이 많았던가 하는 것이 감지된다. 〈수궁경회록〉·〈용당영회록〉·〈수문사인전〉 등에서는 문인이 우대받는 세상을 그리워하는 구우의 속마음이 숨겨져 있다. 이 이야기들에서 우대받는 무장들에 대한 불만이 여실히 나타나 있는데, 이러한 무장과 장군 우대에 대한 불만은 곧 明初의 사회체제를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삼산복지지〉·〈부귀발적사지〉·〈영호생명몽록〉·〈태허사법전〉 등의 작품을 보면, 인간 개인의 운명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품의 공간적 배경을 생각해보다라도 〈華亭逢故人記〉와 〈天台訪隱錄〉을 제외한 대부분의 작품이 그 시간적 배경을 원대 중기 혹은 원대 말기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명 왕조에 대한 구우의 복잡한 내면심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우리는 구우의 애정전기소설의 원형을 〈추향정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작품은 인·귀 연애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 아니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언급된 남녀주인공 商生과 采采는 구우 자신의 애정체험이거나 또는 구우가 아주 잘 알고 있는 知友의 애정체험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작품의 말미에서 구우 스스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생은 자신의 시와 그녀의 편지를 상자 안에 넣어 두고, 한 번 볼 때마다 며칠씩 밥 먹고 잠자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기 일쑤였다. 대개 끝내 옛 정을 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상생의 친구인 산양 출신의 구우는 그 일을 자세히 알고 있었다. 곧 그 일을 조리에 맞게 서술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여 다시 〈滿庭芳〉 1절을 지어 그 사건을 [세상에] 드러냈다.¹⁸⁾

상생과 채채의 애정고사가 구우 자신의 체험이든지 구우 친구의 체험이든지 간에 이 두 사람의 애정이야기는 구우의 애정전기소설 집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전등신화》 21편중에서 구우가 자신과 연관된 정보를 노출하고 있는 작품은 이 작품 밖에 없기 때문이다. 商生과 采采는 青梅竹馬의 사이였으나 채채가 장성하게 되자 유교의 도

이를 주관하는 보다 큰 힘에 의해 정해져 있다는 일종의 숙명론적 세계관이 나타나고 있다. 구우는 인간세계의 비극과 불행을 가져오는 세력을 괴물이나 악귀 등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동란의 시대를 몸소 체험한 구우가 이런 역사의 참혹한 상황을 합리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18) 《전등신화구해》, 앞의 책, 1965-1966쪽.

……併其書藏巾笥中。每一覽之，輒寢食俱廢者累日。蓋終不能忘情焉爾。生之友山陽瞿佑備知其詳。既以理論之，復製〈滿庭芳〉一闋，以著其事。

덕률에 따라 서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이러한 윤리도덕의 장애를 뛰어넘는 방법으로 서로 시를 지어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방법을 구상한다. 이러한 미미한 소통의 방법도 장사성의 농민반란이 강남지방을 휩쓸면서 결국 끊어지고 만다. <추향정기>에서 상생과 채채의 사랑을 가로막는 것은 男女有別이라는 유교의 도덕률과 戰亂의 발생이다. <추향정기>의 연애고사는 유년시절의 사랑이 결실을 맺지 못했다는 점에서 보면 비극적이다. 두 남녀의 사랑이 비극적 결말이 된 것은 전란이 직접적 원인이겠으나 유교의 도덕관 역시 간접적 영향을 미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채채는 봉건시대에 드물게 나타나는 作詩의 재능을 가졌던 여인이며, 순종적 성격도 가지고 있었다. 시를 통한 애정의 교류, 행복한 결말을 맺지 못하는 사랑의 형태는 구우의 소설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연애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유교도덕률은 구우가 남녀의 연애를 있는 그대로 묘사할 수 없게 만드는 일종의 장벽이었다. <녹의인전>에 나타나는 여주인공 녹의녀를 보면, 그녀는 전생에 茶童이었던 조원을 사랑하다가 賈似道에 의해 피살되었다. 그녀는 조원과의 인연을 완성하기 위해 금생에서 여귀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 때문에 그들의 사랑은 宿緣을 잇기 위해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비극적 운명을 원래부터 내포하고 있었다. 이처럼 여성인물을 여귀로 가정하여 표현하는 것은 유교도덕률의 엄격한 통제를 피하기 위한 일종의 우회적 장치였을 것이다. 남녀가 사랑을 나눈다는 내용의 소설은 유교의 윤리도덕과 위배되지만, 남자와 귀신이 만나 못 다한 인연을 맺는다고 하면 그것을 유교의 도덕을 문란하게 한다는 이유로 비난할 수 없을 것이다.

<등목취유취경원기>의 여주인공 위방화, <녹의인전>의 여주인공 녹의인, <금봉채기>의 여주인공 오홍낭, <애경전>의 여주인공 나애애, <취취전>의 여주인공 유취취 등은 모두 억울한 죽음을 당하여 남자주인공에게 애정을 호소하는 유형의 여귀형상이다. 위방화·녹의인·오홍낭 등과 같이 처녀로 죽어 부부지연을 회구하는 여귀형상도 있고, 나애애와 유취취의 경우처럼

이미 결혼을 했었으나 행복한 결말을 누리지 못한 비극적 여귀형상도 있다. 이들 여귀형상에 대해 구우는 기본적으로 동정적이고 안타까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채채의 결말을 안타까워했던 구우는 위방화나 녹의인이나 오홍낭의 비극적 운명을 동정하였다. 그의 뇌리에는 봉건시대의 경학교수로서 가부장적 질서와 윤리도덕을 옹호해야한다는 입장과 남녀간의 사랑을 숙명적인 것 내지 인과응보의 결과로 해석하려는 입장이 서로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우의 내면적 갈등은 김시습이 《금오신화》에서 보인 입장과 다소 차이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살펴보겠다.

Ⅲ. 《금오신화》의 여귀형상

1. 人·鬼 연애와 여성형상

우리나라 고소설에도 귀신을 소재로 한 지괴소설이 적지 않지만 인·귀 연애를 소재로 하는 전기소설은 그리 많지 않다. 김시습의 《금오신화》가 우리고소설의 역사에서 두드러져 보이는 이유는 김시습이 이 작품을 창작하기 이전에는 이러한 낭만성과 예술성을 갖춘 작품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금오신화》는 〈만복사저포기〉·〈이생규장전〉·〈취유부벽정기〉·〈남염부주지〉·〈용궁부연록〉의 5편으로 이루어진 전기소설집이다. 그러나 인·귀 연애를 소재로 한 작품은 〈만복사저포기〉와 〈이생규장전〉의 두 편이다.

〈만복사저포기〉의 이야기에서 우선 눈길을 끄는 것은 이야기 전체의 구도가 불교의 논리와 세계관에 기대고 있다는 점이다. 양생이 어느 날 만복사의 배나무 아래를 배회할 때, 공중에서 ‘그대가 좋은 배필을 구한다면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할까 근심하는가?’라는 목소리를 듣게 된다. 이

공중의 목소리에 자신을 얻은 양생은 부처님과 저포 놀이를 하게 되고, 또 처음 보는 처녀에게 대담하게 말을 건넨다. 공교롭게도 양생과 만난 처녀는 억울하게 죽은 자신의 사연을 부처님께 알리고 배필을 만나게 해 달라고 호소하는 女鬼였다. 양생이 여귀의 부모와 만나게 되는 곳은 寶蓮寺라는 절이며, 마지막에 여귀가 공중에서 알려주는 소식도 자신이 귀신으로서의 윤회를 끝내고 다른 나라에서 남자로 태어나게 되었으니 양생도 깨끗한 業을 닦아 윤회를 벗어나기 바란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불교의 세계관은 소설의 시공간적 배경이 되고 있다.

남자 주인공 양생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양생은 외롭고 고독하기 그지없는 인물이다. 그는 부모를 일찍 여의었고 변변한 직업도 없었기 때문에 결혼도 하지 못한 채 만복사 스님들의 호의에 기대어 절에서 더부살이하는 인물이다. 김시습의 생애를 생각할 때, 김시습의 생애와 양생의 생애는 별반 다를 바 없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어린 시절 신동으로 불리며 장래가 촉망되던 김시습은 10대 후반의 나이에 모친의 별세와 부친의 재혼으로 인해 정신적 방황이 시작되며, 자신과 가깝거나 자신을 지지한다고 여겼던 선배와 동료들이 세조의 등극과 더불어 모조리 등을 돌리거나 그와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하는 세대변화를 몸소 체험하였다. 결국 김시습은 30대 초반에 세상을 등지고 스님의 복색을 한 채, 조선 팔도를 방랑하는 생활을 하였다. 작가는 물론 자신이 사는 세계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고, 작가로서의 상상력을 발휘하여 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는 존재이다. 그러나 김시습처럼 자신이 속하는 세계 전체와 등지거나 그 세계에 동화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경우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김시습의 정신적 고향은 유교이며, 학문적 토대 역시 유학의 그것이다. 그가 일평생 시 창작을 손에서 놓지 않았던 시인이라는 점만 보아도 유학이 그의 삶에서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인가를 감지할 수 있다. 그러나 세조의 왕위 찬탈로 말미암아 김시습은 더 이상 유학에 정착하거나 유학을 정신적귀의처로 삼을 수 없게 되었다. 때문에 그는 정신적귀의처로 불교를 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조선에서 유학의 영

향을 벗어날 수 있는 곳은 절 집안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 작품에서 불교적 세계관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이상할 것이 못 된다. 하지만 여귀형상을 생각해 보면 불교적 세계관보다 유교적 도덕관이 나타나고 있음을 주목할 수 있을 것 같다. 먼저 <만복사저포기>에서 여귀가 부처님에게 올리는 願詞를 살펴보기로 하자.

아무개가 생각하건대 예전 [우리나라는] 변방의 방어가 제대로 되지 못하여 왜구가 침략해 오니. [나라에] 온통 창과 방패가 가득하고 해마다 전쟁이 계속되어 [적들이] 집들을 분탕질하고 살아 있는 백성들을 노략질하니, 동서로 피난가고 좌우로 달아나며 친척과 하인들이 각기 난리를 당했습니다. 저는 포류약질이어서 먼 여행을 할 수 없어 스스로 깊은 구방에 숨어 끝내 정결한 지조를 지켰습니다. 여행길에서 욕됨을 당하지 않고 황역의 재난을 피했거늘 부모님께서는 여자의 수절을 시원스럽게 여기지 않으시고 궁벽한 곳에 피난가시니, 초야에서 외롭게 지낸지가 이미 3년이 되었습니다.¹⁹⁾

위의 인용문은 그리 길지 않지만 조선시대 여성에게 닥친 몇 가지 문제가 압축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먼저 왜구의 기습에 대해 아무 준비를 못해서 백성들이 노략질 당하는 문제는 국가의 책임이니 논외로 해 보자. 적군이 마을을 분탕질하고 노략질하는 상황 속에서 여성을 내버려 두고 피난하는 경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것이 첫 번째의 문제이다. 여기에는 가부장적 논리가 작동하고 있다. 만약 家門을 승계해야 하는 男兒가 있었다면, 그를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었을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피난을 함께 하지 못하는 여성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다. 방치된 여성들은 왜적이 몰려오면 그들의 노리개 감이 되거나 노동력 착취의

19) 심경호, 《매월당 김시습 금오신화》, 홍익출판사, 2000, 249쪽.

……某竊以曩者，邊方失禦，倭寇來侵，干戈滿目，烽燧連年，焚蕩室廬，虜掠生民，東西奔竄，左右逋逃，親戚僮僕，各相亂離，妾以蒲柳弱質，不能遠遊，自入深閨，終守幽貞，不爲行露之霑，以避橫逆之禍，父母以女子守節不爽，避地僻處，僑居草野，已三年矣。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만복사저포기>의 여귀는 그래도 비교적 운이 좋았다. 그녀는 방치되어 규방에 머물고 있었지만, 그래도 적병에게 유린당하는 운명은 모면할 수 있었다. 세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은 적병에게 피살되거나 유린당하는 운명을 용케 벗어났다 해도 가족과 떨어진 여성들은 굶어죽거나 병들어 죽는 운명을 벗어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를 고려해 볼 때, 여귀는 자신을 버리고 떠난 부모를 원망했을 것이다. 또 시신마저 임시로 가매장된 자신의 운명을 괴로워했을 것이다. 개인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운명과 부딪칠 경우, 불행한 운명을 당한 개인은 神佛의 힘에 의지하기 마련이다. ‘초야에서 외롭게 지낸지 이미 3년이 되었다’는 여귀의 고백에 근거해 보면, 전란이 끝나고 귀환한 부모가 그녀를 임시로 가매장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전후사정을 검토해 보면, 여귀는 살아 있는 부모와 반드시 해후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누군가를 통해 부모에게 전달해야만 했다. 그러한 매개의 방법이 부처님이건 다른 神佛이건간에 여귀는 자신의恨을 살아있는 사람(가족 또는 가까운 사람)에게 전달할 어떤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였다. 여귀가 양생을 배필로 고르게 된 이유로는 佛前이라는 매개 작용, 양생 역시 간절하게 배필을 원한다는 염원이 있었음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만복사저포기>의 이야기는 필연적으로 이중적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 冥界의 애달픈 사연과 冥界鬼神의 陽界와의 만남이다. 양생이 만복사에서 저포놀이를 시작하는 장면에서 여귀와의 만남-개념동의 동침-석별의 詩會까지는 양생이 冥界의 여귀를 만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즉, 陰界 중심의 이야기이다. 반면 은주발을 들고 있는 양생이 여귀의 부모를 만나게 되고 寶蓮寺에서 여귀의 부모와 만나게 되며, 여귀의 재산을 물려받게 된 양생이 齋會를 여러 번 주관하여 解怨을 시도하는 장면들은 陽界 중심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何氏女, 곧 여귀를 통해 김시습의 관심이 節操의 유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왜적이 휩쓸고 가는 난리통에서 하씨녀는 情操를 지킬 수 있

었고, 정조를 지킨 채 사망할 수 있었다. 김시습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정조를 끝내 지켰던 여귀의 死因은 아마 病死나 餓死였을 것이다. 김시습에 있어 남녀를 불문하고 절조를 지킬 수 있는가, 없는가는 평생에 걸쳐 그가 고민했던 숙제였다. 김시습의 시대에는 본격적으로 성리학이 정착하기 전이었으므로 여성에게 정조가 목숨보다 소중하다는 식의 성리학적 사고방식은 아마 없었을 것이다.

〈이생규장전〉의 여주인공 최낭은 節義의 화신이라는 점에서 〈만복사저포기〉의 何氏女와 그 성격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약간의 차이도 있다. 하씨녀는 冥界의 공간에서 양생을 만나고 양생이 陽界의 공간에서 하씨녀의 부모를 만나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된다. 〈이생규장전〉에서는 최낭이 처음부터 여귀로 나타난다는 설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두 사람의 사랑은 과객이었던 이생에게 최낭이 적극적으로 구애하면서 시작된다. 이생이 부친에게 질책 받고 영남지방으로 쫓겨나 사랑이 위기에 빠졌을 때, 그녀는 주동적으로 행동하여 결국 위기를 해소하고 결혼에 이르는데 성공한다. 결혼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될 듯해 보이지만 이야기는 다시 반전되어, 홍건적의 침략을 만나게 되자 최낭은 홍건적에게 피살된다. 이생은 적병을 만나자 마자 자기 한 몸 살겠다고 달아나고, 그 바람에 최낭은 봉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 항거하다가 적병에게 피살된다.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되면 대개 여귀인 최낭이 이생에게 잔혹하게 복수하는 이야기를 상상하기 쉽다. 그러나 뜻밖에 여귀로 나타난 최낭은 이생을 도와 망한 그의 집안을 흥기시키고, 그의 배필로 살다가 인연이 다하자 조용히 사라진다. 최낭의 성격 특징에는 절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²⁰⁾ 김시습의 관점이 녹

20) 김명순, 〈한국고소설의 비극성과 결말구조〉, 《茶谷李樹鳳博士停年紀念論叢》, 경인문화사, 1994, 337쪽. 《금오신화》·〈이생규장전〉에서 여주인공이 적극성을 띠고 죽음도 불사하는 것은 다름 아닌 정절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며, 인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남주인공에게 다가가고 사랑을 지속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때 여주인공에게 있어 정절은 죽음의 계기가 되고, 인연은 만남의 계기가 되는 것이다. 여주인공의 적극성이 돋보이는 것은 여인이 정절을 죽음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생규장전〉은 또 《전등신화》 중 〈연방루기〉와 〈위당기우기〉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연방루기〉는 두 사람의 사랑이 결실을 이루는 해피엔딩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이생규장전〉과는 다르다.²¹⁾ 〈만복사저포기〉에서는 여귀 하씨녀가 절조를 지키며 억울하게 죽었는데, 양생이 그녀의 解冤을 위해 여러 차례 齋會를 베풀어 주어 여귀의 원한을 해소시켜 준다. 〈이생규장전〉에서는 억울한 죽음을 당한 최낭이 도리어 자신을 버리고 간 이생을 도와주기 위해 환체로 나타날 뿐 아니라, 마침내 그의 집안을 회복시키고 환체의 몸으로 배필이 되기도 한다. 환체가 없어지게 되자 그녀를 그리워 한 이생이 곧 죽었다는 설정도 이야기가 최낭 중심으로 전개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설정이라고 하겠다. 최낭은 자신을 버리고 달아난 이생을 원망하지 않고 그를 도움으로서 여귀의 몸이면서 끝까지 남편에 대한 의리를 지킨다. 이제 다음 절에서 인·귀 연애의 구성과 여귀형상의 전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여귀형상과 창작심리

김시습의 《금오신화》가 《전등신화》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적어도 형식적으로 보아도, 또 내용적 측면에서 보아도 김시습은 구우의 전기적 이야기 양식과 그가 빚어낸 여성형상, 특히

21) 남민수, 〈구우와 김시습의 창작동기비교〉, 《민족문화논총》 46집, 2010, 214-216쪽. 남민수에 의하면, 〈이생규장전〉에서 이생이 그네 줄과 연결된 대나무 광주리를 타고 담을 넘어 최낭과 만나는 장면은 〈연방루기〉에서 鄭生이 그네 줄에 연결된 대나무 광주리를 타고 올라가는 장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위당기우기〉에는 왕생이 꿈속에서 주막집 딸의 내실에 들어갔다가 사방 벽에 붙여진 題畫詩를 보는 장면이 있는데, 〈이생규장전〉에도 이생이 최낭이 인도하는 누각에 올라갔다가 사방의 벽에 붙여진 攄화시를 보는 장면이 있다. 이 역시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영향관계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일부 영향을 받은 것이고, 전체적으로 모두 영향을 받은 것 같지는 않다.

여귀형상에 대해 적지 않은 공감대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금오신화》는 전기소설의 낭만적 애정이야기 구조를 모방하였으며, 특히 인·귀 연애구조를 그대로 수용하였는데, 이는 김시습의 창작에 대한 입장이 구우의 그것과 더불어 유사한 면이 적지 않았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추향정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상생과 채채의 좌절된 사랑은 구우가 여귀형상을 묘사하거나 서술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 같다. 구우는 해피엔딩의 전기이야기보다 불행한, 비극적인 전기 이야기에 더욱 관심을 보이는 데, 이는 좌절로 끝난 그의 개인적 애정체험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된다. 김시습이 구우의 인·귀 연애 이야기를 주목하고 연구한 이유는 자신이 처한 고독한 입장을 표현할 적절한 서사수단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김시습은 유교적 세계관을 포기하고 승려의 행색으로 조선의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속한 세계 전체를 포기해야만 했다. 하지만 방랑의 시간에도 그는 계속 번민해야 했다. 절의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임금에 대한 충성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었다.(곧, 세조에 대한 충성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임금을 더 이상 존중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조선의 산하와 백성들에 대한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유교적 세계관에 대해 번민하는 선배 문인을 만나게 되었다. 그가 곧 구우였다. 김시습은 구우의 표현수법 모두에 대해 찬성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인·귀 연애의 구도나 숙명적 세계관에 대해서는 상당한 공감을 느꼈다. 〈만복사저포기〉의 하씨녀와 〈이생규장전〉의 최낭은 모두 적극적인 여성형상인데, 모두 女鬼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양생과 이생이 모두 연애의 과정에서 주동적인 모습을 보이기보다 피동적으로 여귀의 행동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절의의 견지라는 관점에서 평가해 보면, 양생과 이생의 행동은 의문투성이이다. 그들은 여성을 통해(심지어 그 여성이 여귀임을 확인한 뒤에도) 자신의 이기적 욕망을 이루려 하는 존재로 설정되어 있다. 김시습이 과거의 벗이나 선배 등, 유교적 세계관을 형성하는 존재들에 대한 실망감과 좌절감이 양생과 이생 같은 수준 이하의 남성인물을 빚어내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

반면 여성인물의 경우는 어떠한가? 〈만복사저포기〉의 하씨녀는 부모가 그녀를 버렸지만 결코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부모와의 연결을 위해 애쓰는 존재로 묘사되어 있다. 아마 유교적 관점에서 평가하자면 양생의 인격은 그녀와 비교가 안 될 것이다.(이를테면 양생이 마지막 장면에서 그녀가 남긴 유산을 그녀를 위한 재를 지내는데 모두 쓰는 것도 아마 하씨녀의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생규장전〉의 최낭은 더욱더 절의의 화신 같은 존재이다.²²⁾ 그녀는 사랑을 이루기 위해 부모에게 식음을 전폐하고 자신의 의지를 밝히기도 하고, 적병의 위협 아래 자신을 버리고 이생이 달아난 뒤에도 그의 곁에 나타나 옛사랑을 여전히 완성하고자 하고, 남자의 가문을 다시 일으켜 주려고 노력하는 존재이다. 최낭의 행위 표준은 유교적 세계관과 절의중심의 도덕관념이 아니라면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IV. 구우와 김시습의 여귀형상을 통한 창작심리의 비교

창작심리 측면에서 검토해 보면, 구우와 김시습의 창작에 대한 관점은 비슷한 곳도 있고, 약간 차이 나는 곳도 있다. 비슷한 점이라면 두 사람 모두 유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고, 창작의 시작이 시를 창작하는 것에서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시를 중시했던 당대에 구우가 태어났더라면 그는 아마 자신의 시 창작 재능으로 말미암아 높은 관직에도 올랐을 것이고, 순탄한 인생을 보냈을 것이다. 유감스럽게 구우가 태어났던 원말명초는 몽고

22) 설중환은 《금오신화연구》(앞의 책, 148쪽)에서 〈이생규장전〉의 주제를 ‘적극적인 절의의 추구’라고 하였다. 박희병의 〈전기소설의 장르관습과 금오신화〉(《한국전기소설의 미학》, 돌베개, 1997, 243쪽)에서도 ‘절의’의 문제를 다루면서 “《금오신화》는 바로 이 절의를 인간이 고수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덕목으로 간주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그는 또 “《금오신화》의 다섯 작품 가운데서도 절의를 지키는 인간의 아름다움과 숭고함을 가장 탁월하게 묘사하고 있는 작품은 〈이생규장전〉이다.”라고 하였다.

죽이 몰락하고 농민군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주원장 같은 무인이 시대를 이끌어나가던 시대였다.

구우 같은 문인들은 감시의 대상이자 관리의 대상으로 전락하였다. 구우는 정치와 사회에 대한 불만을 시문창작으로 달랠 수밖에 없었다. 김시습의 경우를 보면, 그 역시 태생적으로 시인이었고, 미래가 촉망되던 신진 인재였다. 그러나 김시습의 유교적 세계관은 단종의 숙부였던 세조가 왕위를 찬탈하는 사건을 겪으면서 산산조각 났다. 周武王의 아들 成王을 보좌했던 周公 旦의 고사를 상기할 때 주공 단이 얼마든지 왕위를 얻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나, 그는 끝내 조카를 도와 주 왕조를 안정시켰던 것이다. 유교적 세계관이 무너진 김시습은 雪岑이라는 법명 속에 자신을 숨기고 조선 천지를 방랑하는 신세가 된다. 아마 세조의 찬탈사건이 없었다면 김시습의 일생은 관리로서 비교적 순조로웠을 것이고, 《전등신화》를 읽을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유교적 세계를 벗어나 불교적 세계에 정신적으로 귀의했던 김시습은 조선 천지에서 몸돌 곳 없는 이방인으로 살아야만 했다.

애정전기소설이란 원래 남녀의 애정을 소재로 하는 소설이다. 사실 전기소설이라는 장르는 唐代的 문인들에 의해 처음 만들어졌다. 당대 문인들은 시 창작의 여가에 산문과 정론문을 짓기도 하였는데, 한 편의 문장 안에 시와 산문의 재능을 모두 보여 주기 위해 전기소설을 창작하게 되었다. 원진의 〈앵앵전〉 같은 작품이 인구에 회자되면서 당대전기소설은 일세를 풍미하였으나 송사와 원잡극이 성행하면서 송원시대에 문언단편전기소설의 창작은 다소 쇠퇴하였다. 구우가 전기소설방식으로 자신의 울분과 불평을 달래 보려고 한 데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전등신화》의 〈영호생명몽록〉·〈태해방은록〉·〈영주야묘기〉·〈태허사법전〉·〈수문사인전〉 같은 작품은 비록 신괴적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명초의 정치와 사회에 대한 구우의 불만이 상당한 강도로 드러나고 있다. 필자의 추리로는 구우가 자신의 의도가 드러나지 않도록 몇 편의 애정전기소설을 《전등신화》에 끼워 넣은 것으로 유추한다. 이러한 구우의 의도는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당시의 문

인계층은 구우의 애정전기소설을 필사해서 돌려 읽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고, 심지어 이 작품은 중국을 넘어 조선과 일본, 베트남 등지에서도 문인들에게 상당한 인기를 끌었던 것이다. 여귀를 통해 애정관계를 설정한 것은 낭만적 설정을 해 보려는 것도 원인이겠지만, 명나라 관리들의 검열을 피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대개 구우가 창조한 여귀형상은 매우 다양하다. <등목취유취경기>의 위방화나, <녹의인전>의 녹의녀는 비극적 과거의 역사를 상기시키는 여성인물이다. 그녀들의 불행한 개인사는 개인의 역사이기도 하고, 한 시대의 역사반영이기도 하다. <금봉채기>의 오홍낭, <애경전>의 나애애, <취취전>의 유취취 등은 개인적 불행에 더 방점이 가긴 하지만 구우의 시대와 가까운 근세사를 반영해 주는 여성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애경전>의 나애애는 문제적 인물창조라 할 수 있다. 나애애는 원래 기녀출신이었지만 결혼 후에는 부덕을 갖춘 인물로 변모하였고, 남편과 헤어진 시기에도 시부모를 정성을 다해 모신다. 나중에 변방 장군의 요구를 거절하고 정절을 지키기 위해 자살을 하는 여인이다. 이는 구우의 유교적 세계관이 반영된 인물로 현대소설의 관점에서 보면, 성격의 합리적 변화를 결여하고 있다. 유교도덕의 관점에서는 기녀도 열부로 변하게 만드는 구우의 그릇된 관점이 이러한 인물을 창조한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든다.

구우가 빚어낸 여귀형상이 매우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다면 김시습이 빚어낸 여귀형상은 주로 節義의 관점에 서술의 중심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만복사저포기>의 하씨녀가 양생과 배필이 된 것은 여귀로서 사랑을 갈구했기 때문이라고도 해석될 수 있으나, 한편으로 부모와 연락하여 못 다했던 효도를 완성한다는 관점에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 <이생규장전>에 등장하는 최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녀가 이생을 만나 결혼에 이르는 과정까지는 사랑을 갈구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생의 배반으로 억울하게 여귀가 되었는데, 여귀가 된 후에도 다시 이생을 도와 가문을 부흥시킨다는 설정은 지아비를 위해 절의를 다한다는 유교적 관점이 아니면 해석하기가 난감하다.

대개 구우가 빚어낸 여성인물들은 사랑을 갈구하는 본능적 욕구에 따라 행동하는 것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는 인간의 본능을 긍정할 수밖에 없다는 구우 자신의 가치관이 투영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금오신화》에서는 여성인물들이 절의의 관점에서 행동하고 있는데, 이는 김시습의 가치관이 반영된 것이라고 하겠다.

V. 결론

《전등신화》와 《금오신화》의 여귀형상은 이전의 문언소설에서 볼 수 없었던 매우 다양한 여성인물을 창조해 냈다. 이들 다양한 여성인물의 유형은 고소설의 인물형상을 보다 풍부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한국과 중국의 고소설사에서 매우 독특한 예술적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

우선 《전등신화》의 여귀형상을 살펴보면, 여귀가 출현하여 남자주인공과 애정관계를 형성하는 작품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구우가 살았던 명초 정치상황의 엄중함이 구우의 창작심리에 영향을 미쳐 인·귀 연애의 스토리를 만들어 낸 것으로 생각된다. 가령 〈등목취유취경원기〉는 과거수험생 등목이 송대의 궁녀였던 위방화와 만나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이다. 궁녀 위방화는 송원 교체의 불행한 역사를 상징하는 여성인물이기도 하며, 궁궐에 갇혀 젊은 나이에 죽었기 때문에 자신의 억울함을 세상에 호소하려는 여귀형상이기도 하다. 구우가 살았던 시대는 한족의 문화를 부흥시키기 위해 경학과 도덕윤리를 매우 강조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구우는 부득이 남녀의 자유연애가 아니라, 여귀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살아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 그와 더불어 애정관계를 형성하는 전기소설이 만들어진 것이다. 구우가 창작한 여귀형상들은 모두 시에 뛰어난 여성이 많은데, 이는 물론 재자가인이라는 관념이 뿌리 깊은 문인들에게 시를 통한 감정교류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일 것이다.

구우가 유교적 세계관과 들어맞지 않는 명초의 사회와 정치에 대해 불만을 가졌다면, 김시습은 조카의 왕위를 찬탈한 세조에 대해 불만을 가졌다. 김시습은 절의를 중시하는 자신의 세계관을 지키기 위해 유교적 세계와 절연하고 불문에 들어가 승복을 입고 조선천지를 방랑하는 생활을 7년이나 하였다. 따라서 《금오신화》에는 민생의 고단함을 생생하게 목격했던 김시습의 체험이 반영되어 있다. 구우가 무인들이 득세하는 당시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전등신화》를 지었다면, 김시습은 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당시 사회에 항의하기 위하여 《금오신화》를 지었다고 볼 수 있다. 〈만복사저포기〉의 하씨녀와 〈이생규장전〉의 최낭은 곧 김시습이 생각한 절의의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여귀형상이다.

《전등신화》는 원말명초의 전형적 여성인물들이 여귀형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금오신화》에는 고려말의 전형적 여성인물들이 여귀의 형상에 반영되어 있다고 하겠다. 《전등신화》는 쇠미하게 된 명대문언전기소설에 생기를 불어 넣었고, 《금오신화》는 우리나라의 고소설사에서 애정전기소설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처음으로 선보였다. 두 작가의 창작심리가 여귀형상 내지 여성형상에 미친 영향관계는 앞으로도 밝혀야 할 문제가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김명순, 〈한국고소설의 비극성과 결말구조〉, 《茶谷李樹鳳博士停年紀念論叢》, 경인문화사, 1994.
- 남민수, 〈구우와 김시습의 창작동기비교〉, 《민족문화논총》 46집, 2010.
- 박애화, 〈동아시아에 있어서 《전등신화》의 수용양상-애정류 작품을 중심으로〉, 2009.
- 박애화, 〈한·일·베트남에서 《전등신화》의 전파와 수용〉, 《일본 연구》

- 17, 2012.
- 박일용, <《전등신화》 소재 명혼소설과 〈만복사저포기〉의 귀녀형상과 그 상징적 의미>, 《문학치료연구》 53, 2019.
- 설중환, <《금오신화 연구》>, 《민족문화연구총서》 15, 2013.
- 신해진, <조선전기 고소설에 나타난 여성형상의 특징과 그 의미>, 《우리어문연구》, 23권, 2004.
- 심경호, <매월당 김시습 금오신화>, 홍익출판사, 2000.
- 윤정안, <고전소설 속 여성원귀>, 푸른사상, 2017.
- 이석래, <《金鰲新話》는 《剪燈新話》의 모방인가>, 《한국문학사의 쟁점》, 집문당, 1986.
- 전순남, <《전등신화》중의 애정전기소설>, 2015.
- 조재현, <한글박물관 소장 〈교만홍전〉연구 -《전등신화》 수록작품 〈모란등기〉와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고소설연구》 2020.
- 華強·張國浩 지음, 구성희·추교순 등 옮김, <아주 특별한 중국사이야기>, 신서원, 2008.
- 黃滌明 譯註, <搜神記全譯>, 貴州人民出版社, 1994.
- 剪伯贊 主編, <中國史綱要>, 人民出版社, 1986.
- 瞿佑, <《剪燈新話句解》·《古本小說叢刊本》 33輯, 中華書局, 1990.

< Abstract >

Jeondeung Shinwha is a work that revived literary tradition of romance which had almost disappeared since the Tang Dynasty in the history of Chinese novel. *Geumoh Shinwha* is the first novel in Korea to create the genre custom of romance, so it can be said to be very important work in Josen Dynasty novel history.

As for the female shape of *Geumoh Shinwha* and *Jeondeung Shinwha*, the female figure with tragic fate accounts for the majority of female figures. In extreme terms, the mixed affection stories of a female figure with a sad fate and a male figure who sympathize with it make up main part of the story. Why did Gu-Woo and Kim-Siseop create such tragic female protagonists?

Of course, in the case of Gu-Woo, it is not that there is no affection folklore that ends with a happy ending. However, when viewed as a whole, it seems that the two writers are putting great emphasis on the tragic of affection and creation of the tragic female shape. This study analyzes the literary psyche of Gu-Woo and Kim-Siseup, and the creation a tragic female shape from various aspect, also comparatively analyzes the features of the female shape in the works.

Key Words : 김시습(Kim-Siseop), 인귀연애(human and ghost's love), 구우(Gu- Woo), 여귀형상(shape of female ghoust), 창작심리(creative psychology)

